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락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59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12월 21일)

- 클래스 A : 2010년 08월 12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E : 2012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20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2 : 2017년 05월 23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SC제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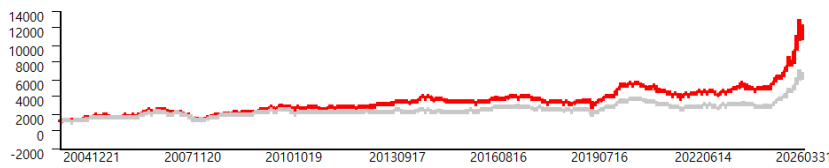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7.81%	25.75%	53.41%	116.35%	118.07%	143.22%	101.53%	956.75%
클래스 A	-17.94%	25.29%	52.23%	113.11%	111.24%	131.77%	85.59%	280.12%
클래스 A-E	-17.91%	25.42%	52.58%	114.05%	113.24%	135.12%	90.21%	189.69%
클래스 C-E	-17.95%	25.26%	52.16%	112.90%	110.82%	131.10%	84.67%	208.55%
클래스 C-P2(연금저축)	-17.92%	25.36%	52.41%	113.59%	112.25%	133.45%	87.90%	148.71%
클래스 C5	-17.95%	25.27%	52.17%	112.92%	110.84%	131.11%	84.68%	253.52%
클래스 S	-17.90%	25.44%	52.62%	114.18%	113.49%	135.53%	90.74%	204.17%
클래스 S-P2	-17.88%	25.49%	52.76%	114.54%	114.25%	136.97%	92.84%	222.18%
벤치마크	-19.08%	19.89%	47.53%	103.64%	83.95%	103.99%	65.04%	471.34%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설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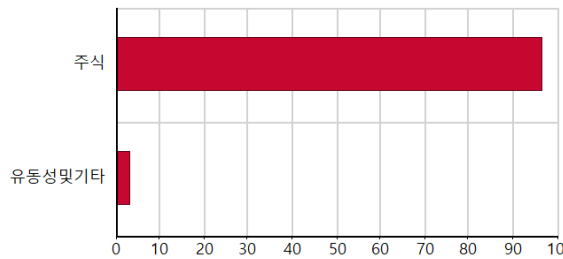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3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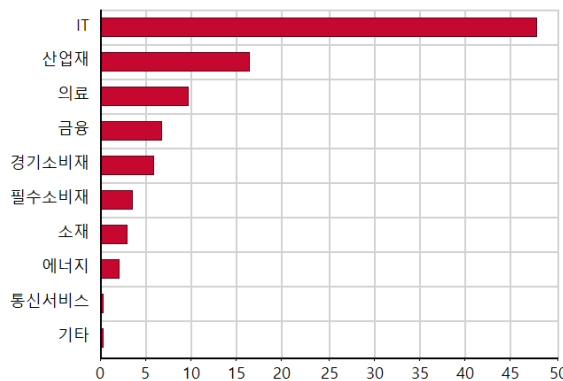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6.4
2	유동성및기타	3.6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47.9
2	산업재	16.5
3	의료	9.6
4	금융	6.8
5	경기소비재	5.9
6	필수소비재	3.5
7	소재	3.0
8	에너지	2.3
9	통신서비스	0.4
10	기타	0.4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3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4.7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1.7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3.9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1.5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2.3	삼양식품	음식료.담배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2.1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1.5
KB금융	금융	2.0	SK스퀘어	금융	1.2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67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175% (판매 0.4%)
- 클래스 C-E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425% (판매 0.65%)
- 클래스 C5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S : 총 연 1.125%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0.9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72%,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C-E, C-P2, C5, S, S-P2: 없음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KOSPI는 전월 대비 19.08% 하락한 5,052.46pt, KOSDAQ은 11.77% 하락한 1,052.39pt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월 주식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KOSPI는 서킷 브레이커가 2회 발동(2020년 3월 이후 월 2회는 처음), 사이드카가 7회 발동하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급등락세를 겪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여타 증시도 연초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직전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하는 조정 장세에 진입한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대형주들이 고점 대비 30%에 가까운 조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도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방어주의 역할을 했던 화장품, 통신서비스, 음식료 업종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반면,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컸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로봇 밸류체인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하락폭이 컸고, 반도체 업종도 가격 상승 모멘텀 둔화 우려, 티보 쿼트에 따른 사용량 축소에 대한 우려 등이 중첩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3.40원으로 전월 대비 6.24% 상승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51.27% 상승한 배럴당 101.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32.8조원의 순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은 35.6조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0.26조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원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계 업종, 시장 조정 구간에서 인터넷 업종과 보험 업종의 언더웨이트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반도체 업종의 추가 조정, 유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코스닥 150의 약, BTS 국내 투어 시작에 따른 차익실현이 발생한 엔터 투어 업종 등이 펀드 성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방산 부문 수주 증가와 미국 하반기 주파수 경매 이후 본격적인 발주가 기대되는 RFHIC, 미국 원전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태웅,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가치 부각이 기대되는 OCI홀딩스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시장 조정 구간에 오버웨이트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LO 기대감을 보유한 애플론, 로봇 밸류체인인 한국피아이엠의 추가 조정 등이 펀드 성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 조정 구간에서 벤치마크에 대한 복제율을 높이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버웨이트이었던 IT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수요 기대감으로 방산 업종의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기대감을 보유한 2차전지 업종 또한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유틸리티 업종의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4월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나, 4월 중 전쟁에 대한 변곡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최근의 지지율 하락 등을 볼 때 5월 이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란의 입장에서도 전력 재정부담을 통한 전쟁 대응 능력의 충원이 장기적으로는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합의를 통해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대적인 전쟁의 확대보다는 중동 내 국지적인 분쟁이 지속되더라도 이번 전쟁은 일시적인 봉합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전개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지수의 밸류에이션 레벨 점검도 필요합니다.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등 극심한 침체기 3회를 제외하고는 KOSPI 지수가 PER 8배를 하회했던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현시점의 KOSPI 8배인 지수 5,000pt 선은 견고한 바닥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다만,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고유가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는 점은 지수의 조정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쟁 양상에 따른 변수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불가피하겠으나, 바닥을 확인하며 점진적인 안정화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연초 가파른 상승세 이후 일부 숨 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장기 금리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부 차익실현 빌미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시장은 실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 존재하는 만큼 지수 조정 시 일부 매수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펀드는 일부 시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벤치마크에 대한 복제율을 과거 대비 높였습니다. 가파른 지수 조정으로 인해 KOSPI의 PER 지표는 8배 수준에 도달하며 밸류에이션 매력이 과거 대비 확대되었고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강한 기조, 기업 실적 추정치의 상향 흐름이 빠른 반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유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어 시장의 추세적인 반동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또는 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나 이익 가시성이 높은 업종 및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적 추정치는 상향되고 있으나 주가는 지속적으로 조정세를 보여 가격 매력이 생긴 대형주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여 초과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1분기 실적 기대치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 조선, 방산, 의약, 증권 업종 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1분기 실적 발표 구간을 맞이하여 해당 업종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5월 학회가 예정되어 있고 해당 학회와의 연관성, 기술력을 보유하여 26년 라이선스 아웃이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하여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은행, 증권 등 금융 업종이 1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업종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ESS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추가 조정 발생 시 2차전지에 대한 비중을 과거 대비 높일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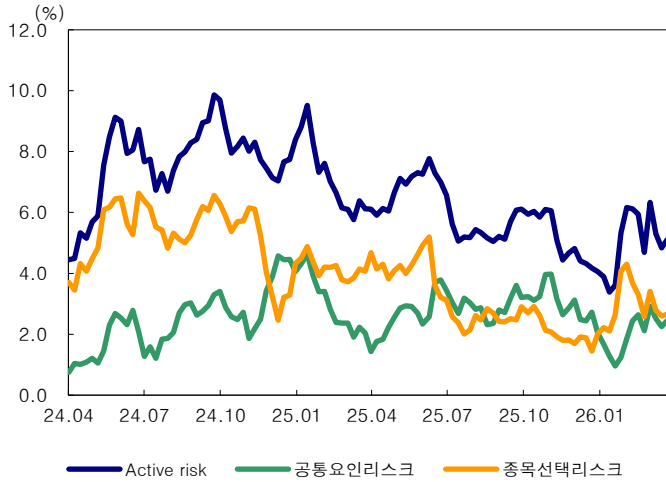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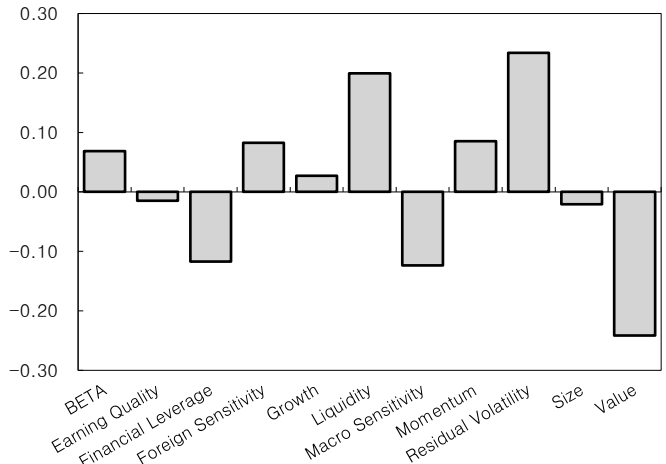
	2026-03-31	2026-02-27
Active Risk ¹	4.20%	4.69%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2.02%	2.11%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0.75%	2.51%
- 섹터 리스크 기여도	1.28%	-0.40%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2.17%	2.58%
베타	0.94	1.11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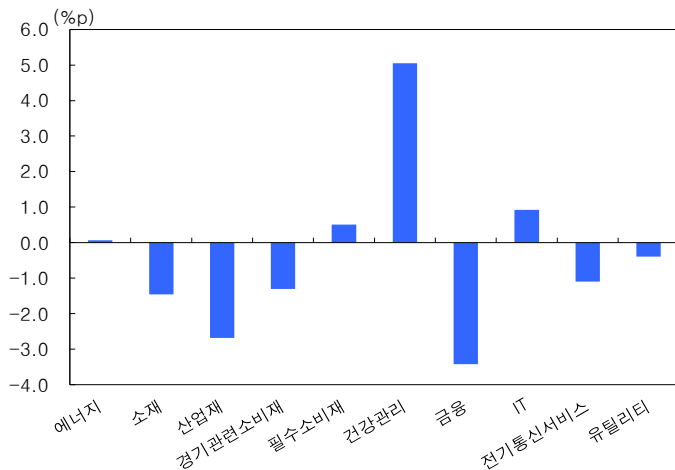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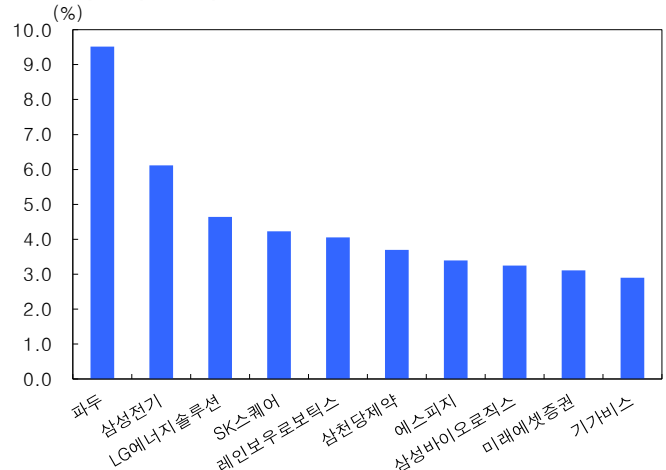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3월말 현재, 업종일등증권1[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4.2%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12개 종목 증가하여, 144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건강관리', '산업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IT', '전기통신서비스'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2월말 기준으로는 '파두'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SK스퀘어'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Residual Volatil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 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